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

최향량 글 /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학년 및 단원:

6학년 국어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1. 작품 속 인물과 나

6학년 실과 5. 가정생활의 실천

국어과 교과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실과과 교과역량: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성취기준: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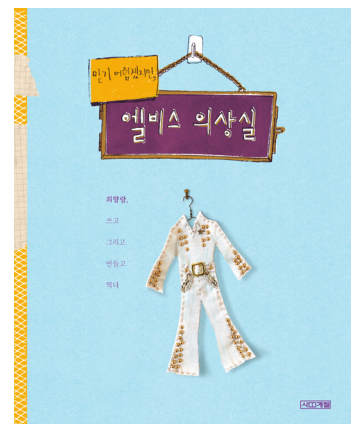
(6국05-0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실02-03) 옷의 기능을 이해하여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적용한다.

작성: 창원 월영초등학교 남하나 선생님



■ 다양한 교과와의 통합 수업

이 책은 6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의 독서 단원, 미술의 판화 단원, 실과의 바느질 하기 단원을 통합하여 수업하기 좋습니다. 국어 문학에서 배워야 할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어려운 성취기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술 교과에서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한 한 권의 책을 작품 집처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옷을 지어 입고 단추나 지퍼도 수선해 입을 일을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서로의 고민이나 등장인물의 고민에 알맞게 디자인해 보고, 옷을 만들어 선물하는 기쁨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 수업 구성 의도

『민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은 작업실을 구하던 화가가 우연히 개구리와 동거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담담하게 적어 놓은,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소설입니다. 실크스크린, 사진 촬영에 도전해 작가의 땀과 열정이 듬뿍 담긴 한 권의 작품집과도 같습니다.

개구리는 사람처럼 대학생도 되었다가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실패와 좌절도 겪는 생을 살다 12년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아직은 13살이지만 우리 반 6학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겪을 만한 일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느라 고민과 걱정이 많을 아이들에게 미리 보여 주고 싶습니다. 나의 고민을 누군가 한 명이라도 공감해 준다면, 나를 위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선물을 건넬 누군가가 있다면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은 꽤 멋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표지에 쓰인 글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작가 알아보기, 작가의 책 더 살펴보기 ▶ 내용 예상하기 ▶ 제목의 '엘비스'에 대해 연상해 보고 알아보기 	1차시
읽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프롤로그> 읽기 ▶ 주인공 화가에 대해 알아보기 - 화가는 어떤 처지인가? ▶ '세어 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기 - '세어 하우스'란 어떤 삶의 방식인지 알아보기 - 집을 공유하여 산다면 어떤 규칙을 서로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기 - 내가 원하는 동거인의 조건은 무엇인가?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9쪽 개구리 씨의 상황별로 화가가 선물한 옷 살펴보고 나라면 어떤 옷을 지어줄지 상상해 보기 	3~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쪽 개구리의 유언 듣기 ▶ 화가가 지어준 열 벌의 옷값으로 집을 물려받는 것은 괜찮을까? 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 집을 물려준 개구리의 마음 이해하기 - 집을 물려받은 화가의 기분이나 생각 상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을 읽은 후 하고 싶은 활동 3가지 써 보고 발표해 보기 	5차시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읽은 후	★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6차시
	★ 빈 의자 연극 - 등장인물의 상황, 마음 상태, 궁금한 것, 하고 싶은 말 등을 생각해 보고 빈 의자에 인물을 초대해 인터뷰해 보기	7~8차시
	★ 등장 인물에게 옷 지어 주기 - 반짝이는 스팽글, 부직포 등으로 고민 상황별 맞는 옷을 구상하고 만들어 보기	9~10차시

읽기 전 활동

책을 읽기 전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미리 파악하여 교사가 더 보여 주어야 할 자료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1. 제목과 표지에 쓰인 글에 대한 생각 나누기

책의 표지에 ‘민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이라는 간판이 있고, 옷걸이에 하얀 상·하의에 금색 스팽글이 화려하게 수 놓인 무대 의상이 있습니다. ‘최향랑, 쓰고 그리고 만들고 찍다’라는 문장도 보입니다.

책을 쓰고 그리고 만들고 찍다니 무슨 뜻일까요? 책을 쓰고 그린다는 건 글을 쓰고 안의 그림을 그렸다는 뜻, 그러면 ‘찍다’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카메라로 찍었다고 합니다. 구도, 각도, 빛의 양 등을 고려하여 사진을 찍고 콜라 만든 책입니다.

2. 작가 알아보기, 작가의 책 더 살펴보기

책을 펼쳐 작가 소개글을 읽어 보면 꽃잎, 씨앗 등으로 콜라주하는 것, 이것저것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꿰매고 뜨개질 하는 등 공예 작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작가의 ‘실크스크린’ 첫 도전작이자 작가가 직접 촬영한 장면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다른 저서인 『숲속 재봉사』와 『숲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에 나타난 아기자기한 콜라주 작품을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민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의 뒷 이야기를 그린 『엘비스 의상실의 수상한 손님들』도 나중에 같이 읽어 보기를 권했습니다.

3. '엘비스'에 대해 연상해 보고 알아보기

2008년생인 6학년 아이들은 '엘비스'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외국 가수를 떠올리기는 힘듭니다. 80년대생인 저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는 어렵듯이 TV연예 프로그램에서 본 보조자료 화면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유튜브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부르는 영상을 같이 찾아보니 아이들은 "아, 이 표지의 이 옷이 똑같아요." "옷이 너무 화려해요. 진짜 이런 옷을 입고 나오다니!" 하며 신기해합니다.

읽는 중 활동

1. 주인공 화가에 대해 알아보기

이 책에서 프롤로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화가와 개구리와의 동거가 시작된 첫날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잘 지내던 작업실을 주인이 비워 달라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작업실은 허름한 곳뿐이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화가에게 부동산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집을 소개합니다. 프롤로그의 몇 줄 안 되는 문장에서 화가의 처지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셰어 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기

한 가정당 하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보통인 학생들에게 '셰어 하우스'를 소개하고 그 의미와 장, 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 하우스를 알고, 삶의 다양한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집을 서로 공유한다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적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개인이 모여 살아가는 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개구리 씨의 상황별로 화가가 선물한 옷 살펴보기(8~29쪽)

조용한 동거인이었던 개구리 씨는 대학생이 되고, 힙합을 즐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사람의 인생과 같이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을 합니다. 생일 선물로 화가가 옷을 만들어 주기 시작하자 개구리 씨는 화가에게 매년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 생일이 지나도록 열 벌의 옷을 만들어 줍니다. 개구리 씨의 고민에 딱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옷입니다. 고민별로 화가가 어떤 옷을 만들어 주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4. 내가 화가라면 어떤 옷을 지어 줄까 상상해 보기

상황별로 다른 개구리 씨의 고민들을 보고 나는 어떤 옷을 지어 줄까 상상해 보고 발표를 해 보았습니다. 고학년답게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개구리 씨에게 심플한 무채색 계열의 옷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5. 개구리 씨의 유언 듣기(32쪽)

개구리 씨는 12년의 생을 살다가 죽기 며칠 전 화가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마지막 옷을 부탁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대 의상을 주문하고, 장례를 부탁한 뒤, 함께 살던 집을 화가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열 벌의 옷값 대신입니다. 개구리이지만 인간의 생애와 같은 평생을 산 개구리 씨의 죽음과 유언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고민을 들어 주고 옷을 지어 준 화가에게 열 벌의 옷값으로 집을 선물한 개구리 씨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 집 전체를 물려받은 화가의 기분이나 생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구리 씨의 마음을 공감하고, 집 한 채가 열 벌의 옷값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6. 책을 읽은 후 하고 싶은 활동 3가지 써서 발표해 보기

친구들과 이 책을 다 읽은 후 하고 싶은 활동을 3가지씩 수첩에 적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가 실제로 개구리를 육실에서 기른 경험으로 이 책을 썼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씨의 고민뿐 아니라 친구의 고민이나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 주고 싶다, 개구리 씨와 같이 살아 보고 싶다,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같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조연인 미자와 미미도 인상 깊었는지 만나보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의○

1. 개구리로 살아 보기
2. 옷 만들어 보기
3. 개구리랑 집에서 살기

손희○

1. 옷 만들기
2. 개구리 키워 보기
3. 무언가를 물어 보기

박예○

1. 개구리 씨 만나서 얘기해 보기(주로 옷 취향에 대해)
2. 개구리 씨 주문 받은 옷 만들기
3. 미어캣, 미자, 미미 만나보기

이연○

1. 나도 무대 의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2. 개구리와 대화
3. 개구리의 옷 만들기

심하○

1. 어떤 사람이 원하는 옷을 한번 만들어 주기
2. 미어캣을 애완동물로 키워 보기
3. 가족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다.

박수○

1. 개구리 씨가 만들어 달라고 한 대학생 옷을 친구한테 만들어 주고 싶다.
2. 개구리 씨가 한 자수를 해 보고 싶다.
3. 미미와 미자랑 즐거운 얘기를 나눠 보고 싶다.

장미○

1.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2. 개구리가 말한 것처럼 나도 대화하고 싶다.
3. 가수의 옷을 만들어 주고 싶다.

이현○

1. 개구리랑 친구하기
2. 개구리와 대화하기
3. 개구리 전용 옷 만들기

정채○

1. 인형 크기로 틀을 짜고 안에 솜을 넣고 원하는 색으로 바느질을 하며 진짜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싶다.
2. 작은 장식도구를 모아서 옷을 만들고 꾸미고 싶다.
3. 가게 간판을 만들고 싶다.

이정○

1. 미자와 미미 만나기
2. 옷 만들기
3.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추서○

1. 옷 만들어 보기
2. 개구리 씨와 인터뷰해 보기
3. 개구리 특징 알아보기

정수○

1. 개구리 씨와 같이 살면서 친구 하기
2. 개구리 씨가 운전하는 택시 타 보기
3. 미어캣에게 고민 상담하기

읽는 중 활동 <책을 읽은 후 하고 싶은 활동 3가지 써 보기>

읽은 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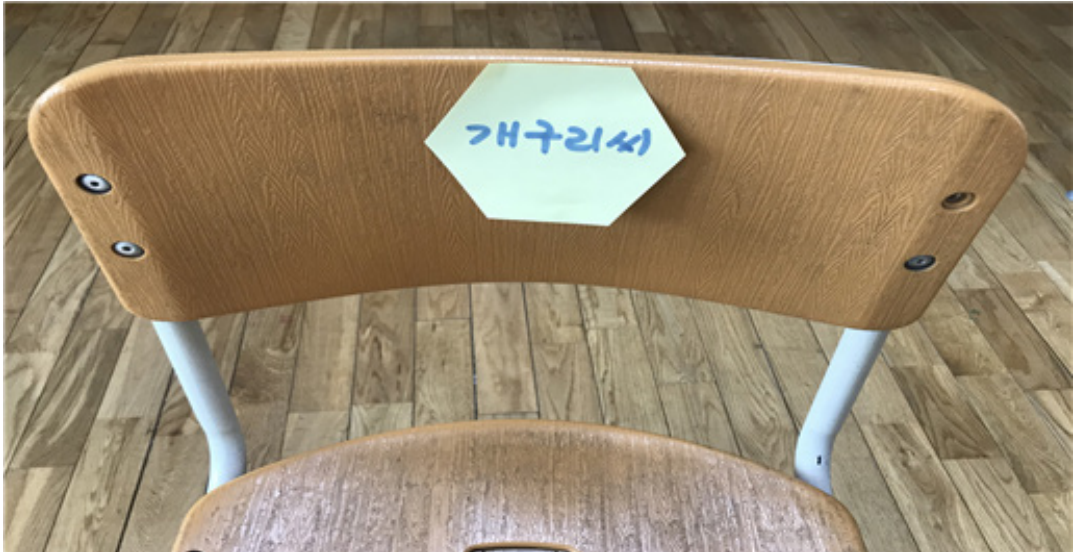
1.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개구리 씨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등장인물에게 편지 써 보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재치있는 생각과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p>개구리 씨에게</p> <p>안녕하세요. 개구리 씨 저는 같이 살던 동거인이예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개구리가 집주인이라는 것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계속 살다 보니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개구리 씨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외로워요. 하지만 요즘엔 집에 가기도 차리고 미어캣 조수들까지 생겨서 덜 외로워요. 예전엔 계속해 개구리 씨의 생일 날 옷을 만들어 주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날이 그리워요.</p> <p style="text-align: right;">손희○</p>	<p>개구리 씨에게</p> <p>개구리 씨, 개구리 씨에 대한 첫인상은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었고 개구리가 말을 한다는 것에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같이 살다 보니 개구리 씨에 대한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개구리 씨는 여러 활동을 해 보는 도전 정신과 가벼운 접촉 사고에 차를 타지 않겠다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개구리 씨가 돌아가실 때 전 정말 슬펐어요. 개구리 씨가 입고 싶어 한 엘비스 프레슬리 의상은 만들어 줬어요. 개구리 씨가 호주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p> <p style="text-align: right;">정이○</p>
<p>화가에게(유언장)</p> <p>안녕 나는 개구리 씨야. 처음 만났던 날, 나는 네가 나를 정말 잘 챙겨 줄 거라고 믿었어. 내가 너를 믿었기에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 그런데 그 옷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너에게 생일마다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옷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어. 그것에 보답하려고 내가 죽어도 옷 만드는 일을 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었어. 그리고 이 집을 너에게 주려고, 나는 곧 있으면 죽게 될 거야.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 이제야 하게 되었어. 이때까지 정말 고마웠어.</p> <p>-개구리 씨가</p> <p style="text-align: right;">이연○</p>	<p>개구리 씨에게</p> <p>안녕하십니까요. 개구리 씨. 저예요. 개구리 씨가 어제 개구리의 수명은 12년이라고, 이번 달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때 정말 가슴에 무언가 큰 돌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개구리 씨를 마음에 묻어둔 채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마음 한구석에 폭풍우가 몰아친 듯 공허합니다. 알게 모르게 개구리 씨가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저 작은 개구리이자 동거인이었어요. 그런데 매해 생일마다 개구리 씨에게 옷을 만들어 주며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개구리 씨와 함께여서 저는 좋았어요. 개구리 씨도 좋았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옷을 만들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 주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고요. 개구리 씨가 하늘에서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도 개구리 씨를 마음 가장 깊은 서랍장 한 구석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p> <p>-개구리 씨의 동거인</p> <p style="text-align: right;">정채○</p>
<p>읽은 후 활동 중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p>	

2. 빈 의자 연극

책 속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빈 의자 연극>으로 해 보았습니다. 빈 의자 연극은 다른 사람을 앉혀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 의자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상상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황(인물의 표정, 옷차림, 상황, 마음 상태 등)을 설정하고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빈 의자 연극

★ 이야기 속 인물을 초대하여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해 봅시다.

1.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선택합니다.

2. 인물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해 봅시다.

인물 이름	멍치 아범씨(간, 엠비대병원) 주인
장소, 시간	계명병원 거동실 표정
표정	긴 안색으로 슬퍼 보인다.
상황	오늘 만들어주신 사람들나.
인물의 마음 상태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상황.
물어볼 질문	오늘 어떻게 만들 수 있었지.
궁금증	개구리씨와 다름이 같 들었나요?
궁금증	어떻게 해서 의상들은 지리게 되었나요?
하고 싶은 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주어 사랑받게 많이 기뻐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빈 의자 연극

★ 이야기 속 인물을 초대하여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해 봅시다.

1.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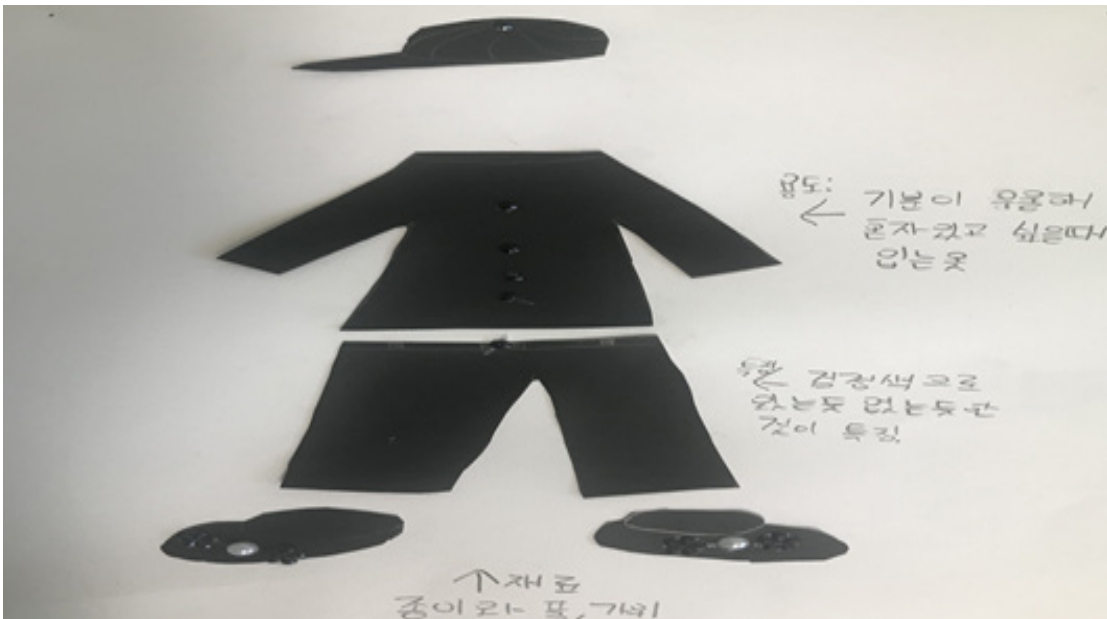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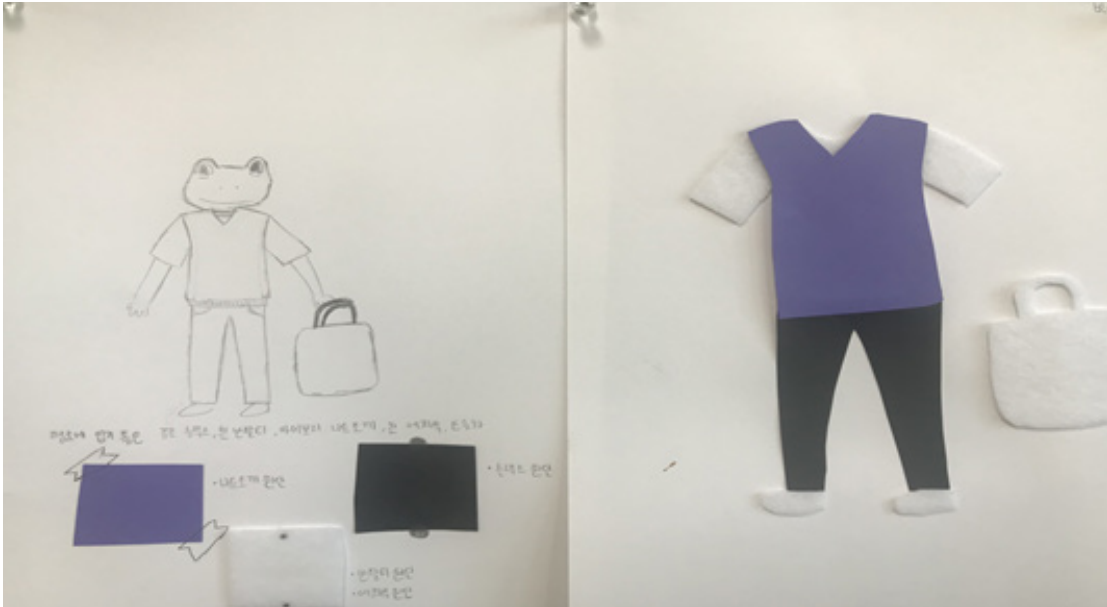
2. 인물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해 봅시다.

인물 이름	명호 선생님(순 '나')
장소, 시간	한 26.0%
표정	힘든척 한다
상황	계명에 대해 리 다 알았을 때
인물의 마음 상태	슬프다
물어볼 질문	계명에서 왜 한이 이리 큰지 궁금해요. 계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궁금해요.
궁금증	계명에서 무슨 한도 딱히 없었나요? 계명에서 왜 배로 못 먹어야 했나요? 한이 이리 큰 건 왜 그런지 궁금해요.
하고 싶은 말	계명에서 한도를 줄 지켜주셨던 것이 감사하게요.

읽은 후 활동 중 <빈 의자 연극>

3. 등장인물에게 옷 지어 주기

상황을 설정하여 등장인물의 고민에 맞게 옷을 지어 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엘비스 무대의상을 고려해 반짝이 비즈 스티커를 구입하여 마음껏 쓰게 하였습니다. 저학년이었다면 비즈 스티커를 화려하게 붙였겠지만, 평소 검정, 회색, 흰색 등의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니는 우리 반 친구들은 예상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의 옷을 많이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보다는 인물의 감정이나 상태를 고려한 의상을 만들어 주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읽기 후 활동 <등장 인물에게 옷 지어 주기> 1

